



동학농민혁명기념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특별전

3.1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

민족대표 33인 중 9인이
동학농민혁명지도자?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3.1운동까지
더 나아가 촛불시민혁명까지 이어진
도도한 역사의 뿌리를 들여다 본다.”



손병희 취조서

문 피고는 동학당(東學黨)과 관계한 일이 있는가.
답 천도교라고 한 명칭은 병오년(1906)부터였고 그 전은 동학이라고 하였다.
문 나는 동학이라고 할 때 가입하고 있었다.
답 동학당은 정일전쟁 당시 폭동을 일으킬 때 피고도 가담하고 있었는가.
답 그렇다. 나는 그때 두복으로 있었다.

이종원 취조서

문 피고는 언제 천도교에 가입하였는가.
답 38년 전에 가입하였다.
문 피고는 동학당(東學黨)의 폭동 때에나 참가한 것이 아닌가.
답 피고는 아니었다.

(이병현 편저, 『삼일운동비사』의 민족대표 취조서에서 발췌)

11.27 부터

04.28 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18 | 겨울 | 34호

신년인사
이승우 / 기념재단 이사장

기획 명사대담
정세균 / 국회의원, 前국회의장

기념재단 포커스
주요 재단 소식

참여자 유족 인터뷰
최낙인 / 참여자 최도열의 증손자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선정

지역단체 포커스
지역단체 선양사업 소개



내가 아는 시인 한 사람은

조 태 일

세상에 벽에 걸 만한
상상의 그림이나 사진들도 흔하겠지만
내가 아는 시인의 방 벽에는
춘하추동, 흑백으로 그린
녹두장군 초상화만 덜렁 걸려 있다.

세계의 난다곤다하는
예술가며 정치가며 사상이며
지 할아버지며 할머니
지 아버지며 어머니,
병아리 같은
지 귀여운 새끼들 얼굴도 흔하겠지만,

내가 아는 시인의 방 벽에는
우리나라 있어온 지 제일로 정 많은 사내
녹두장군의 당당한 얼굴만
더위도 추위도 잊은 채 덜렁 걸려 있다.

손가락 펴 헤아려보니 지금부터 80년 전,
농부로서 농부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에게 가장 충실해서
일어났다가 역적으로 몰려
전라도 피노리에서 붙들린 몸,

우리나라 판천과 왜군들의 합작으로
이젠 서울로 끌려가는
들것 위의 녹두장군.

하늘을 향해 부끄럼 없이 들어 올린 상투며,
오른쪽 이마엔 별명보다 훨씬 큰 혹,
무명저고리에 단정히 맨 옷고름,
꼭꼭처럼 몇 가닥 곱게 뻗은 수염,
천리길을 몸 묶인 채 흔들리며
매섭고 그러나 이젠 자유스런 눈빛으로
산천초목을 끌어안은 녹두장군.

처음에는 아이들도 무섭다고 무섭다고
에미의 품안을 파고들었다지만,
이젠 스스럼없이 친해져서
저 사람 우리 할아버지다
저 사람 우리 할아버지다
동네 꼬마들을 불러들여 자랑을 일삼는단다.

마짓것 희미한 자기 혈육 따져 무엇한다디냐
그 녹두장군을 자기네 집 조상으로 삼는단다.
내가 잘 아는 시인 한 사람은.

조태일 趙泰一

시인, 전남 곡성 출생(1941~1999) 경희대 국문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한국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시집으로 식칼론(1970), 국토(1975), 가거도(1983), 연가(1985), 자유가 시인더러(1987), 산 속에서 꽃 속에서(1991), 풀잎은 꺾이지 않는다(1995), 혼자 타고르고 있었네(1999) 등이 있으며, 제10회 만해문학상, 편운문학상, 전라남도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02 시로 읽는 동학농민혁명
조태일 / 내가 아는 시인 한 사람은

04 새해인사
이승우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06 포토토픽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12 기획 명사대담
정세균 / 국회의원, 前국회의장

19 기념재단 포커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회, 운영위원회 개최
이승우 재단 이사장 전북애향운동본부 '제41회 애향대상' 수상
JTV 인터뷰, '동학농민혁명기념일 결정되다'
연극 「갑오백성」 제작 및 공연
기획특별전, '3.1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

26 참여자 유족 인터뷰
최낙인 / 참여자 최도열의 증손자

33 뉴스초점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일(5월 11일) 선정
SBS 특별기획 드라마 「우금티」 제작·방영(예정)



35 지역단체포커스
지역단체 선양사업 소개

41 파랑새 소식
기념관 방문단체

45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제자(題字): 효봉 여태명

표지 설명 / 우금티 동학농민군위령탑

이 기념탑은 1973년 1월 11일 우금티 고개 청상부근에 건립되었다. 기념탑이 서 있는 우금티 일대(충남 공주시 금학동 327-2)는 동학농민혁명 전개과정에서 가장 큰 전투가 벌어졌던 곳으로 1994년 3월 17일 사적387호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발행일 2019년 1월 1일 | 발행인 이승우 |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 전화 063.538.2896 |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 제작 홍디자인

새해 인사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2019년 희망찬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2018년은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새 정부의 민주개혁과 자유평화 이념이 무르익는 분위기 속에서 동학
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의 기틀이 될 중점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팔목할만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로 선정되었습
니다. 우리 재단은 법령 개정 절차 등 기념일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전
반에 총력을 기울여 전 민족적인 반봉건항쟁이자 반일항쟁이었던 동학농
민혁명의 전국적인 위상을 되살리는데 적극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이며, 내년 초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자 및 유족 등록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법이 개정되어 약 9년간 멈춰있던 유족등록 업무가 지난 9월에 재개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유족등록 업무의 총괄 수행을 맡고
있는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참여자와 유족 발굴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애국 애족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신선양사업과 연구조사사업, 기념관운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 한 해 성과를 바탕으
로 올해에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국
각 지역의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등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여러 관계기
관과 협력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
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가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자작고개전적지「동학혁명군위령탑」에서 “동학농민혁명, 평화의 꽃으로 활짝 피어라”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자작고개전적지는 124년 전 1894년 11월 20일(양)과 21일 동학농민군이 민보군을 맞아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 농민군 800여명이 전사한 곳으로, 이곳에는 희생된 농민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977년에 건립한 「동학혁명군위령탑」이 서 있다.

올해 기념대회는 첫째 날(10일) 오후 2시부터 모듈자리힐링체험마을 대강당에서 ‘강원도와 북한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열린 2018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 학술대회와 함께 역사특강, 유족의 밤 등의 행사가 펼쳐졌고, 둘째 날(11일) 서석면 일원에서 펼쳐진 길놀이를 시작으로 「동학혁명군위령탑」 광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진수(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김창식(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 김창묵(동창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장) 등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이정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을 비롯하여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허필홍 홍천군 군수, 김재근 홍천군의회 의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천도교인 및 전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기념대회 화보



▣ 벽화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자작고개



▣ 길놀이 / 서석면 피리골예술단



▣ 기념대회 특설무대



기념대회 기념식장



기념대회 기념식장

■ 이승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박진수(보은동학 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공로패 시상 / 기념사업단체 관계자]



■ 이기곤(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김창식(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
[공로패 시상 / 동학농민혁명유족회 관계자]

■ 이정희(천도교 교령),
김창묵(동창만세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공로패 시상 / 천도교 관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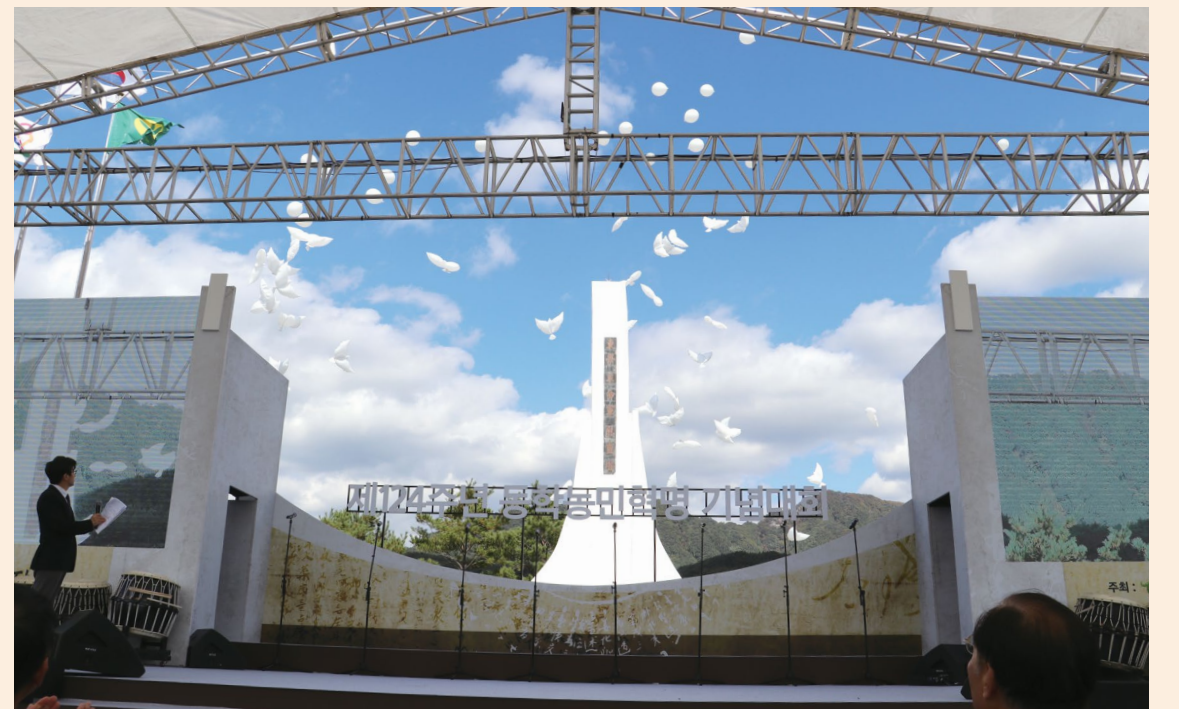
▣ 학술대회 종합토론 / 201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 학술대회



▣ 문화공연 / 김영임(국악 명창)



▣ 문화공연 / 모듬북 공연(한국전통타악그룹 태극)



▣ 평화를 위한 기원 / 종이비둘기 날리기

“ 차원 높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만민평등세상을 추구하고, 일제의 침략에 국권수호를 위해 일어섰던 갑오선열의 숭고한 구국애민정신은 우리 후세들에게 귀감이자 자부심이지요. 이런 귀중한 역사적 전통을 우리만 느껴서는 안 되고, 우리 후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 등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동상도 건립하고, 공원조성 등 성역화사업도 해야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

일 시 _ 2018년 11월 23일(금)
장 소 _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대 담 _ 정세균 | 국회의원(前 국회의장)



이번 호 명사대담에는 정세균 국회의원을 만났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페퍼다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쌍용그룹 상무이사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 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뒤 국회의원 6선에 성공했고,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하였다.

〈경력〉 제15·16·17·18·19·20대 국회의원, 고려대 총학생회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당위원장, 민주당 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제20대 전반기 국회의장

〈저술〉 국민훈장 무궁화장(2017), 제8회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 사업회 백봉신사상(2006),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 정치부 문상(2006) 등

〈저술〉 『99%를 위한 분수경제』(다우, 2011), 『정치 에너지 2.0』(후마니타스, 2011), 『나의 접시에는 먼지가 끼지 않는다』(다우, 2007), 『질 좋은 성장과 희망한국』(백산서당, 2008),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전략』(나남, 1999) 등.

문병학 의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명사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녹두꽃』 독자들을 위해 근황과 함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세균 저는 2년간의 전반기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종로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소관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선양 사업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별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중세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만민평등세상을 구현하고자 했던 근대 민주항쟁이었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일어난 반일 구국항쟁이지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이 사건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지역적 사건으로 왜곡된 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990년대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고, 그러한 노력들이 2004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는 왜곡과 단절을 오랜 기간 겪어왔지만 그 정신은 우리 근현대사를 꿰뚫고 이어져왔다고 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뿌리로 일제강점기 항일의병과 3·1운동, 독립운동 등으로 이어졌고, 해방 후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도 그 정신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국민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천명한 광화문 촛불시위, 민혁명 역시 가슴 벅찬 우리의 민주항쟁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병학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근대 민주주의 뿌리인데, 1894년 그해 겨울 동학농민군이 충청도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의 신무기를 극복하지 못해 쓰러진 후 조선의 지배층에 의해 ‘반란사건’으로 철저히 억눌렸고, 이어진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학자들과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극심하게 왜곡되어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균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실패를 애석하게 바라봤던 역사학자들도 있었던 반면에 식민주의 사학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내란으로 명명했고, 동학변란 등으로 칭했습니다. 내란으로 규정함으로써 일제의 부당한 침략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식민주의 사관은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일제 강점기 ‘동학당의 난’, ‘동학난’으로 불렸고 해방 후 역사교과서에도 70년대 이전까지 ‘동학란’으로 기술될 정도였습니다. 왜곡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그동안 참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헌 변호사님, 이이화 선생님 같은 훌륭한 선각자 분들과 역사의 정의를 후대에 일깨우고자 했던 올곧은 연구자들의 노력을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병학 네,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1992년부터 전주의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공동회장을 맡으셨고, 이후 문화체육부 사단법인이었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아 10년 가까이 동학 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에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01년 12월 7일 국회 연구단체 ‘갑오동학혁명연구회’ 구성에 힘을 기울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셨지요. 그때 국회연구단체인 이 모임의 대표를 김태식(민주당, 전북완주) 국회의원에서 맡으셨습니다. 여당 간사를 겸하여 책임연구원으로 윤철상(민주당, 전북정읍) 국회의원, 야당 간사는 권오을(한나라당, 경북안동) 국회의원이 맡아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백주년을 전후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대중적으로 전개된 기념사업과 국민의 정부 출범이라는 시대상황이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면서 국회에서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활동에 나섰고, 그 결실로 2004년 3

월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실로 110년 만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가 명실상부하게 복권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뜻 있는 분들의 노력과 우리 국회가 뜻을 함께 하여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근대사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급격한 진전 등에 힘입어 역사학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진 역사학계 연구 성과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유폐된 것처럼 조선정부에 반기(反旗)를 든 단순한 ‘반란사건’이 아니라 안으로는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고, 밖으로는 19세기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이른바 서세동점(西勢東漸) 시기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의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일대사변으로 파악하고 있지요.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관련 역사학계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우리나라 근대사에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과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요.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근대 민주주의 뿌리라고 평가하는 역사학계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이 한국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그 의미도 큰데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사건은 대중적으로 ‘반란사건’으로 인식을 강요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히 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애국애족정신 표상으로 대중적인 역사인식이 전변될 수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이 놓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법 제정이 지닌 의의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정세균

특별법은 「국민의 정부」 때 준비되고, 발의되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3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제16대 국회 하반기 때 제정·공포되었지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슬한 굴절을 겪으면서 ‘반란사건’과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인식이 공존해온 동학농민혁명, 갑오년의 역사가 늦었지만 이때라도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 어떻게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를 현재화하여 오늘 우리가 나아갈 지표로 잘 활용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특별법에 '기념사업'과 '기념 재단'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동학농민혁명이 반란사건이다 혹은 전라도에 국한된 지역적 사건이다 이렇게 그동안 잘못된 인식을 강요당해온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차원의 기념사업, 정신선양사업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병학 지난 10여년 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당초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7년까지 완공 예정이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답보상태였다가 지난해 말 전액국비로 사업비가 반영되어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올해 7월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배정되어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예산 25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된 것을 파악하고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2017년뿐만 아니라 2016년에도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정부에서 지방비 대응투자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총사업비 383억원이 국비로 투입되는 이 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16년과 2017년 예산을 수립한 2015년과 2016년에 갑자기 정부에서 지방비 대응투자를 요구한 것입니다. 갑자기 막대한 금액의 대응투자를 요구하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국적 차원의 애국애족정신의 선양을 위한 사업의 취지와 달리 지방사업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했던 왜곡된 지난 역사로 되돌려진다면 기념공원 조성의 취지는 온 데간 데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역사논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법에는 분명하게 기념사업 추진의 주체가 '정부'로 명시되어 있으며,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와도 동떨어진 예산 수립이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2017년에 수립해 확정된 2018년 예산에는 국가예산 사업으로 바로잡아 반영되었습니다. 다시는 법률과 배치된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고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문병학 지난 4월 24일 사단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에서 서울지하철 종각역 5번과 6번 출구 사이에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제막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서울 종로에 건립된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은 특별법에 명시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을 새로운 단계로, 전국화의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틀이 될 것이며, 애국애족 정신을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요지의 축사를 하셨습니다. 서울 종로는 의장님의 지역구이기도 하여 감회가 남달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상 건립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균 그래요. 동상 제막식이 있었던 그날 아침 비가 조금 내리다가 제막식을 시작할 때는 비가 멈췄어요. 종로 네거리 전봉준 장군 순국 장소에 동상을 건립한다는 얘기를 처음에 이이화 선생님께 들었어요. 동상 건립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적극 동조했어요. 특히나 동상이 들어선 곳이 전봉준 장군이 순국하셨던 현장이고, 그곳이 지역구이기도 해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흔히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동학농민혁명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역사가 달리 쓰였겠죠. 동상의 전체적인 형상은 전봉준 장군이 체포될 때 다리에 부상을 입어 들것에 들린 채 서울로 압송된 후 재판정을 오가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사진 속의 모습인데, 미완의 혁명으로 마감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를 서울시민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듯합니다.

‘사람이 하늘이다’는 차원 높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만민평등세상을 추구했고, 일제의 침략에 국권수호를 위해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구국애민정신은 우리 후세들에게 귀감이자 자부심이지요. 이런 귀중한 역사적 전통을 우리만 느껴서는 안 되고, 우리 후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 등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동상도 건립하고, 공원조성 등 성역화사업도 해야 하고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병학 네, 의장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의장님 말씀 깊이 새기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정신 선양에 힘을 기울여야겠다고 마음 다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빠뜨린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제대로 찾고 바르게 평가·해석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난관과 질곡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특별법도 제정되었고, 새정부 출범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는 각종 기념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정신을 선양하는 사업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보며, 그 몫을 우리가 잘 찾아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국회의 역할이 매우 소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예산을 만들고 그런 차원을 넘어 우리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후세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녹두꽃’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서도 계속 지켜봐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병학 의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담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단 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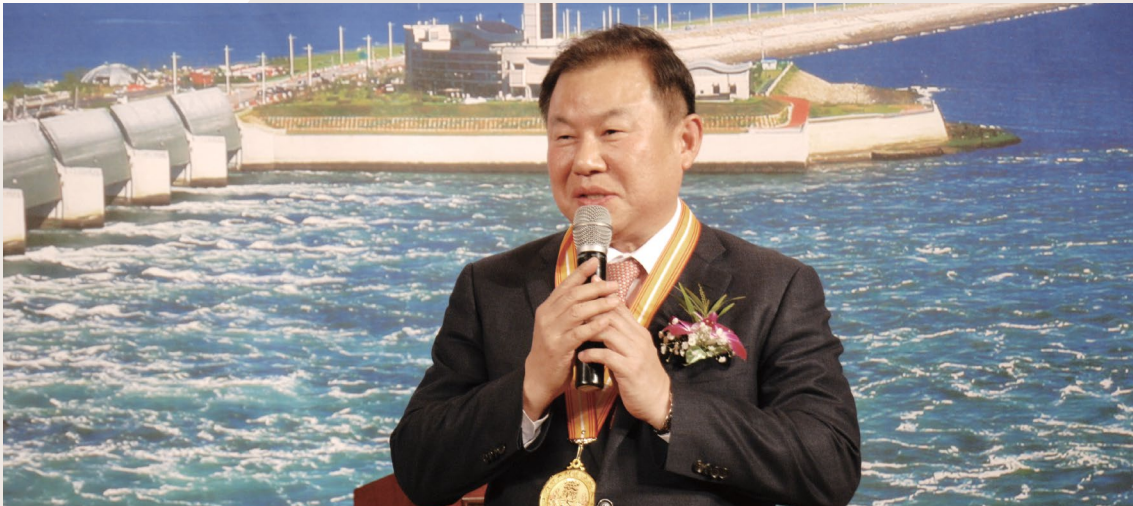


12월 13일(목)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회의실에서 2018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이사회(14시)와 2018년 하반기 운영위원회(11시)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념재단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안, 2019년 예산 및 사업 계획안,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추진현황,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업무수탁 등이 보고되었다. 이사회 이전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자료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전국화·세계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재단 운영위원회 개최



이승우 재단 이사장 전북애향운동본부 '제41회 애향대상' 수상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임병찬)에서는 매년 전라북도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에게 '애향대상'을 시상한다. 애향 대상은 대상 1명, 본상 2명, 법인특별대상 1명에게 각각 수여되는데 2018년 애향대상을 이승우(군장대학교 총장) 재단 이사장이 수상하였다. 이승우 이사장은 지난 2008년 군장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학 인재 육성과 발전을 위해 재산 15억 원 상당의 금품을 학교법인에 기탁하여 장학제도를 확대하는 등 학교발전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2016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후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5월 11일) 선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국비 미반영으로 담보상대였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전액국비로 환원·반영하게 함으로써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내후보 선정(문화재청)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애향대상 시상식은 지난 해 12월 13일 전주 르원호텔(백제홀)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JTV 시사진단 인터뷰, '동학농민혁명기념일 결정되다'

지난 해 11월 17일, JTV 시사진단 프로그램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일 선정과 관련하여 이승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국가기념일 선정의 의미, 향후 법적 절차 등이 논의 되었으며, 기념일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추진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연극 「갑오백성」 제작 및 공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전주시립극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2017년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희곡 「갑오백성」(작가 김진영)을 작품화하여 전주·부안·고창·정읍을 순회하는 공연을 가졌다.

연극 「갑오백성」은 100분 분량에 출연진이 30여 명에 이르는 대작으로 지난 해 10월 18일~20일 제113회 전주시립극단 정기공연(3회)으로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공연된 후 부안예술회관(23일), 고창문화의전당(25일),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강당(27일, 정읍)에서 각각 공연되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제작된 문화예술작품들이 대체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중심으로 내용이 이루어진 반면 이번 작품은 갑오년 역사의 숨은 영웅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無名)의 민초 한 명 한 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과 일본을 비롯한 청나라·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내정을 간섭하는 장면 등을 연출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한국사를 넘어 동아시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는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공연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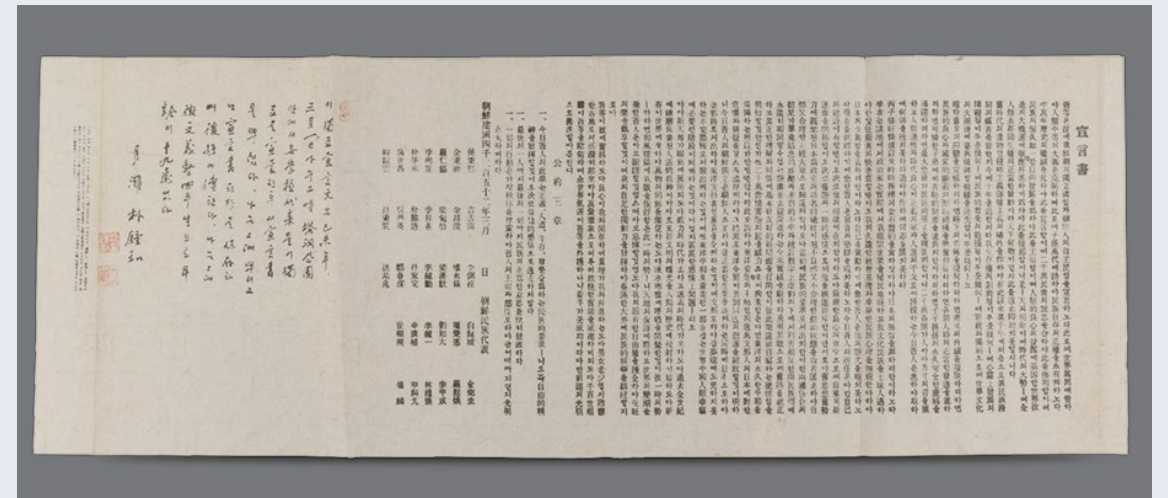
공연 포스터



공연 화보

3.1 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

민족대표 33인 중 9인이 동학농민혁명지도자?



독립선언서(전사유물)

전시 목차	■ 1부 / 함성에서 만세로
	■ 2부 / 혁명군에서 민족지도자로
	■ 3부 / 보국에서 구국으로

지난 해 11월 27일(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실에서 “3·1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기획전특별전을 개막하였다. 2019년 4월 28일(일)까지 이어질 전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획된 특별전으로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 중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던 9명의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이 깊은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기획전특별전은 1부 함성에서 만세로, 2부 혁명군에서 민족지도자로, 3부 보국에서 구국으로 등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전시된 주요자료는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을 보여주는 동학농민군 활동 지도와 각 지역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명단이 수록된 『동학사』 등과 함께 『식남역사』, 『오하기문』 그리고 민족대표 33인이 자주와 독립을 천명한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의 사진과 약력, 재판기록을 보여주는 『민족대표 33인전』, 『삼일운동비사』, 『3·1운동시 피살자 명부』 등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특별전



■ 하반기 기획전특별전 입구



■ 특별전시 내부



■ 에필로그



■ 1부 전시전경



■ 2부 전시전경



■ 2부 서대문 형무소 감옥을 연상케 하는 전시전경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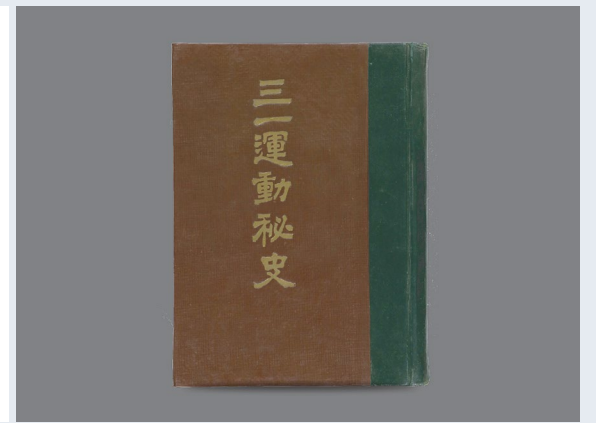
■ 3부 전시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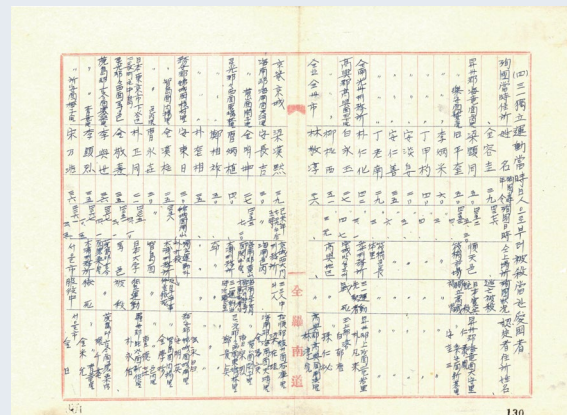
■ 3부 전시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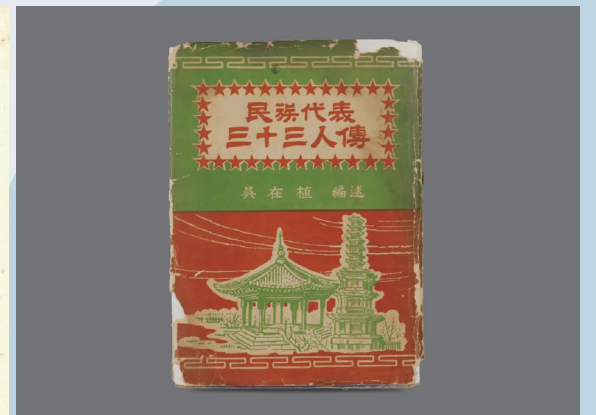
■ 동학사



■ 삼일운동비사



■ 3.1운동 피살자 명부



■ 민족대표33인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최도열의 증손자 최낙인

Q 이번 호의 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최도열의 증손자 최낙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반갑습니다. 저는 풍암리 자작고개 동학농민군 전투에서 전사한 참여자 최 도자 열자(崔道烈)의 증손자 최낙인입니다. 이곳 홍천 서석에서 나고 자란 홍천 토박이로 현재는 춘천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Q 1894년 갑오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신분제 중심의 낡은 봉건체제를 개혁하여 만민이 평등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일어난 반봉건 민주항쟁입니다. 나아가 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고자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일어난 반일 민족항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은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어왔습니다. 따라서 참여자 후손으로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직접 겪었거나 부모님 혹은 선대 어른들께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저는 약 400년 전 홍천에 정착한 전주최씨 참의공파 25대 후손입니다. 조상님들이 큰 벼슬을 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풍암리 지역에서는 풍족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께 전해들은 바로는 “풍암리의 논과 밭 대부분이 우리 것으로, 우리 땅을 밟지 않고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던 재산을 하루 아침에 다 빼앗겨버렸고, 일제 강점기 때까지 동학에 대한 탄압이 심해서 동학의 동자도 말 못하고 쥐 죽은 듯이 목숨을 연명해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재산을 다시 찾으려고 남보다 세~네 배 열심히 일을 하신 결과 예전에 빼앗겼던 농토 대부분을 되찾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10월 23일 증조할아버지 제삿날에는 밤 10시가 넘으면 대문을 잠그고 방문에 홀이불 같은 것을 썩워 불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해서 12시 전에 남모르게 제사를 서둘러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월 23일 저녁에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東學을 신봉하는 집으로 역적의 집안이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왜냐면 풍암리 자작고개전투 때 마을의 많은 분들이 같은 날 돌아가셔서 그날 제사 드리는 집안은 동학혁명에 가담한 집안이라고 금방 표가 나기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 들어와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없어졌지요. 풍암리 자작고개에 위령탑이 세워진 것은 1977년이었어. 그 무렵 아버지께서 장날이면 집에 일찍 돌아오시지 않곤 해서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자작고개 쪽으로 나갔다가 약주를 드시고는 위령탑 앞 성향당 안에 들어가서 한없이 울고계신 것을 몇 번 보았어.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요?

A 80년대 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 주말에 집에 왔는데 낯선 분이 아버지와 방송 녹화를 위해 대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낯선 분이 바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님이었어요. 얼마 뒤 아버지의 대담 내용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었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자작고개와 동학난”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 TV방송을 통해 우리 가문이 동학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몇 번 이와 관련한 사실을 여쭙보았으나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한숨을 쉬시면서 먼 산만 바라보실 뿐 그 어떤 얘기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지 못한 채 1992년도에 작고(作故)하셨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 당시 증조부님의 나이나 집안의 형편 등 이런 저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A 아버지 살아생전에 동학농민혁명을 연구하신 몇몇 교수님들이 자작고개 전투에 대하여 면담하거나 녹취한 내용 이외에는 아버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없어 자세한 내역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후일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들은 애기와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녹취록을 종합해보면 갑오년 10월 당시 저의 고조할아버지이신 최병헌(秉憲, 41세)은 서석면에서 지금의 면장 격의 일을 하셨다 하며, 전주최씨 집안의 영향력이 있는 수장이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들 최도열(道烈, 25세) 즉 저의 증조할아버지는 독자(獨子)였는데 25세 때인 1894년 동학농민혁명 자작고개전투 때 사망하신 이후 특별한 얘기는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 당시 강원도 지역에서도 홍천, 영월, 평창, 정선, 강릉 등지에서 많은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투가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전투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투에 대해 알고 계시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A 갑오년 여름 일본군이 경복궁 무단점령, 친일내각 수립, 청일전쟁 등으로 도발 하자 삼남의 동학농민군이 반일항전의 기치를 들고 봉기를 하였지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동학농민군이 반일항전에 합류하고자 세력을 규합하여 보은 장내리로 나가려고 이동하던 중 지평현의 현감 맹영재가 이끄는 민보군과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지요. 이때 동학농민군을 이끌던 대장은 차기석(車基錫) 접주였다고 해요. 동학농민군은 1894년 10월 13일 물걸리 동창을 습격하여 건물을 불태우고 곡식을 빼앗아 군량미를 확보한 후 교통의 요충지인 풍암리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동학농민군 숫자가 1천여 명으로, 진동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동학농민군을 토벌을 위해 홍천에서 지평현감 맹영재, 원주에서 황성현감 유동근이 이끄는 관군과 민보군이 진격해왔다고 합니다. 이때 황성 쪽의 유동근이 이끄는 관군은 먼드래재에서 진격을 멈추었으나 맹영재 민보군이 풍암리까지 진격해왔는데 그날이 10월 22일인 것으로 「갑오실기」, 「동비토록」, 「임영토비소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 증조부께서도 이 전투에서 전사하셨는데, 맹영재가 이끄는 토벌대가 자행한 동학농민군에 대한 학살은 23일 싸움에서 뿐만 아니라 토벌대가 풍암리를 철수할 때까지 3~4일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맹영재가 올린 보고서를 보면 “총으로 쏘아 죽인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홍천 서석 일대는 사람의 자취가 영원히 끊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전투에서 희생당한 동학농민군과 그들의 일가친척, 동네주민 등이 800명 또는 1천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증언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Q 선생님께서 특별법 제정 이후 증조부님을 참여자로 등록하고자 작성하여 제출한 문서에 “증조부께서 1894년 10월 홍천 서석면 풍암리 자작고개전투에 참전하여 그 전투에서 전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던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갑오년 10월 13일 내촌면 물걸리 동창을 습격하였던 차기석의 동학군이 각처에서 모여드는 동학농민군들과 합세하기 위하여 풍암리로 이동하여 10여일간 진동에 진을 치고 머물면서 봉기를 준비하자 고조할아버지 이신 최병헌(秉憲, 1854년생, 41세)은 그의 아들인 최도열(道烈, 1870년생, 25세)과 함께 각 처에서 몰려드는 수백여 명의 동학농민군들에게 소를 잡아 네 귀통이를 말뚝에 묶어 놓고 소가죽 위에 쌀과 물을 붓고 가죽 밑에 불을 지펴 밥을 해 농민군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또 동학농민군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무기가 부족하자 집에 있던 낫, 도끼, 쇠스랑 등의 농기구를 농민군에게 제공하고, 버드나무로 총을 깎아 먹칠을 해서 무기처럼 위장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진동에 흠으로 보루를 쌓아 진지를 구축하고 맹영재의 민보군과 맞서 싸웠다고 합니다. 맹영재의 민보군은 한 낮부터 저물 때까지 자작고개 아래에서 진동을 포위한 채 조총을 마구 쏘았고, 퇴각하지 못한 동학농민군들이 그 자리에서 쏟아지는 조총 탄환에 맞아 몰살당했다고 합니다. 수백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은 농민군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라는 주문을 외우면 민보군의 총에서 총알이 아니라 빨간 물이 흘러나온다고 농민군의 사기를 북돋우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증조부께서도 총에 맞아 진등에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난리를 진압한 민보군은 인근 마을을 수색하여 마을 주민들이 도망가는 동학농민군을 숨겨주거나 원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학교도이건 아니건 간에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조총과 창으로 학살했으며, 이때 자작고개와 인접한 풍암리 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최씨, 김씨, 민씨, 엄씨, 사씨, 고씨, 황씨 등 30여 호의 남자뿐만 아니라 미처 피난하지 못한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진압군에게 몰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족들이 장광이나 뒷간 등에 숨었다가 동네 뒷산으로 피신하여 화를 면하였는데, 증조할머니는 너무 급한 나머지 돌잡이 아들을 광(곳간)에 있는 큰 쌀독(항아리)에 넣고 뚜껑을 닫은 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속으로 피난을 가셨답니다. 이틀 후 민보군들이 철수하자 집에 돌아와서 곳간 항아리를 열어보니 그때까지 돌잡이 아들이 포대기로 쌓인 채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남으신 분이 최규백(圭伯, 1893~1943) 저의 할아버지입니다.



Q 증조부의 시신은 거두셨는지,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요?

A 증조할아버지의 시신이 어떻게 수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은 바가 없습니다. 증조부님의 묘소는 풍암리를 감싼 채 자작고개를 한눈에 내려다보고 있는 아미산 중턱 선산에 모셔져 있습니다.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공문서나 족보 자료집 서책 등이 있을까요? 기록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전주최씨 참의공파 족보에 증조부님께서 1870년(庚午年)에 태어나셨고 갑오년 10월 23일 풍암리에서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25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증조부에 대한 이외의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Q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사용하셨던 물건이나 유품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을까요?

A 1972년도에 집을 새로 짓기 위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옛집을 헐 때 천장과 지붕에서 당시 사용했던 화승총으로 보이는 쇠뭉치와 여러 권의 고서(古書)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반란사건으로 치부되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그 유물을 남들이 볼까 걱정이 되어 모두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Q 지난 연말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개정되어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에서 참여자와 유족 등록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주변에 많이 홍보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여, 선생님께 등록을 문의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A 풍암리 자작고개 동학농민군 전투에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자로 등록한 것을 파악해보니 일곱 분이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풍암리에 거주하는 참여자 후손 몇 가족이 더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업무가 재개되었으니 이분들에게 알려서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석면동학농민혁명추모사업회와 협조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끝으로, 빠뜨린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고향인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자작고개전투지 등 홍천군 일원에서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를 개최해주신 것에 대해 기념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 강원도 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지난 해 10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기념일 후보일을 추천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참가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 참가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일은 4월 25일(고창군, 무장기포일), 5월 1일(부안군, 백산대회일), 5월 11일(정읍시, 황토현전승일), 6월 11일(전주시, 전주화약일) 등이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일(5월 11일) 선정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황토현전승일을 선정하였다. 기념일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선정위원회(위원장 안병욱, 이하 위원회)를 구성한 후 4개 지자체가 추천한 기념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기념일 선정기준으로 제시한 역사성, 상징성, 지역참여도 등에 따라 기념일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하여 기념일을 선정하였다.

황토현전승일은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황토현 일대에서 최초로 전투를 벌여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날이다. 위원회는 “황토현전승일이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군과 격돌해 최초로 대승한 날로, 이 날을 계기로 농민군의 혁명 열기가 크게 고양되었고,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하였다. 안병욱 위원장은 “위원들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측면과 기념일로서의 상징적 측면 그리고 지역의 유적지 보존 실태와 계승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할 때 황토현전승일이 기념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번 기념일 선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이 더욱 계승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동학농민혁명기념일 5월 11일을 행정안전부에 기념일 제정을 건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해 12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SBS 특별기획 드라마 「우금티」 제작·방영(예정)

2019년 4월,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SBS에서 특별기획한 팩션 사극드라마 「우금티」(60분, 24부작 미니시리즈)가 제작·방영될 예정이다.

드라마 「우금티」 연출을 맡은 신경수 PD를 비롯하여 이승재 마케팅 PD, 권일구 장소섭외팀장, 카메라 감독 등 제작진 12명이 지난 해 10월 19일 기념재단을 방문하였다. 재단을 방문한 제작진은 “동학농민혁명 주제 드라마 「우금티」는 전설이 된 미완의 혁명, 동학농민혁명을 박제된 역사에서 채취 물씬한 휴먼 스토리로 재구성한 민중 역사극을 지향한다”면서 “최근 남북 평화통일에 대해 전 국민적, 전 세계적 관심이 쏠린 가운데 드라마 「우금티」가 북한에서도 평가를 받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다는 점, 주요한 촬영이 개마고원 등 북한 현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남북문화 교류의 장을 여는데 일조하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하였다.

드라마 「우금티」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인 고부군의 탐욕스런 이방 백가네 아들들이 전봉준 등 실존 인물들과 만나면서 전개되는데, 드라마적 재미는 물론 팩트를 기반으로 역사왜곡을 최소화하는데 힘썼다고 제작진은 설명하였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신경수 PD는 「육룡이 나르샤」, 「뿌리깊은 나무」를 통해 역사드라마 제작에서 탁월한 연출력을 보여주었으며, 극본을 쓴 작가 정현민은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역사 대하드라마 「정도전」이라는 작품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정통 사극의 부활을 이끈 주인공이라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 작품에 대한 기대 또한 남다르다.



■ 신경수PD, 「육룡이 나르샤」 포스터

제24회 2018 우금티예술제



■ 제24회 2018 우금티예술제

제24회 2018 우금티예술제가 10월 27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우금티 전적지에서 거행되었다. 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주최로 공주동학답사 체험활동과 추모예술제 추모제례 등으로 진행된 이날 예술제에는 공주농민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전교조공주지회, 사)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공주시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 등 많은 단체들이 참가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제28회 내포동학농민혁명군추모제

지난 10월 29일 충남 태안에서 제28회 내포동학농민혁명군추모제가 펼쳐졌다. 동학농민혁명 태안유족회 및 태안군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연극 「내포에서 부는 바람」(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및 추모사, 헌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승우 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가세로 태안군수, 김기두 태안군의회의장, 정낙추 태안군 문화원장, 이기곤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 이범창 천도교중앙총부 종무원장 등 100명이 참석하였다.



■ 제28회 내포동학농민혁명군추모제

상주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위령제

지난 10월 30일 상주왕산공원에서 상주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위령제가 열렸다. 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위령제(진혼무), 2부 문화공연(바이올린 피아노 2중주, 5인밴드, 해금·태평소·피리 연주)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효일 前상주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장, 김형수 前상주시의원 및 기념사업단체, 상주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상주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위령제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최후항쟁 123주년 기념식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전적비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최후항쟁 123주년 기념식이 11월 3일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주최로 전북 완주 대둔산항쟁 전적비에서 거행되었다. 대둔산전투는 우금치 전투에서 패한 뒤 주력부대와 떨어진 일부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저항했던 최후의 항전이다. 이를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대둔산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 2001년 1월 10일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전적비'를 세웠다. 대둔산항쟁전적비 앞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기념식 및 제례, 좌담회 순으로 진행되었고 김정호 완주동학농민혁명회장, 김현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前회장, 총무국장 이혜경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제124주년 제13회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제향 및 제6회 남원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



제13회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제향 및 제6회 남원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

지난 11월 4일 남원시 사랑의 광장에서 '제13회 방아치전투 전라좌도 농민군제향 및 제6회 남원동학농민혁명 시민문화제'가 열렸다. 갑오년 11월 14~15일 방아치에서 남원지역 농민군과 운봉의 박봉양이 이끄는 민보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정수영)는 2007년 11월 방아치 입구에 기념비를 세웠으며, 매년 동학농민군 제향 및 시민 문화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천도재와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된 이번의 추모제에는 각계각층의 내외귀빈과 참여자 유족,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2018년 무안군동학농민혁명 위령제 및 연극 발표회

지난 11월 16일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2018년 무안군동학농민혁명 위령제 및 연극 발표회'가 열렸다.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무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과 위령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무안고 학생들의 역사동아리 연극 공연 "다시 날아온 파랑새"(연출 : 극단 갯돌)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참여 희생자 위령제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무안군수 김산, 무안군의회 의장 이정운, 무안군민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위령제



▣ 연극 발표회

제124주년 완주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완주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 김정호)는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지난 11월 17일 개최하였다. 전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에 자리 잡고 있는 삼례봉기 역사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기념식, 제례, 완주군민 걷기대회,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열렸다.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하여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단체장 등 군민 300여명이 참가한 기념식에서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 삼례는 1894년 착양척왜·보국안민을 기치로 동학농민군이 2차 봉기를 통해 애국애족 정신을 실천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고장"이라고 강조했다.



▣ 제124주년 완주동학농민혁명 기념식

2018년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회장 김원철)는 지난 12월 6일 부안읍사무소에서 '부안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동국대학교 조성운 교수의 사회로 '부안지역 동학의 포교와 조직', '백산대회의 역사적 의미', '부안지역 동학 및 동학농민혁명 사적지와 활용방안'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부안군 백산은 부안, 김제, 고부, 태인 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로,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때 백산에 집결한 1만여명의 동학농민군이 호남창의대장소를 설치하고 전열을 재정비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 곳이다.



▣ 2018년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학술대회

태안동학농민혁명 뮤지컬 「햇불」



■ 「햇불」 공연팀

지난 12월 6일부터 이틀에 걸쳐 태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태안동학농민혁명 뮤지컬 「햇불」이 공연되었다. 내포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과 연계하여 지역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열린 이번 공연은 동학농민혁명 중 태안지역 의병들의 활약상을 주제로 창작한 한국적 뮤지컬이다.

장흥석대들전투 순국 무명용사 위령제 개최

지난 12월 15일 장흥 동학농민혁명 무명용사 묘역(장흥군 장흥읍 금산리산 21번지 장흥공설묘지)에서 '동학농민혁명 장흥 석대들전투 순국 무명용사 위령제'가 열렸다. 장흥공설묘지에는 무연고 동학농민군 묘 약 1,700여 기가 있는데, 1894년 12월 15일(음) 장흥 석대들전투에 참전하였다가 희생된 타향에서 온 농민군들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장흥 석대들전투 순국 무명용사 위령제

장흥 석대들전투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전투에서 순국한 무명 동학농민군들을 진혼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이사장 이기곤)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중순 장흥군수를 비롯한 많은 기관 단체장들을 포함하여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전해철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남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전국 기념사업단체 대표, 이정신 장흥 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및 전국 유족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념관 방문단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혁명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교육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94년 5월 11일 동학농민군이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라감영군을 크게 물리친 황토현전적(국가사적 295호)지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12월 기간 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많은 단체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였다. 주요 방문단체는 정읍시청 역사문화체험(65명), 부산 달팽이원정대(18명), 정읍여자중학교(156명), 서울 로망스투어(44명), STB상생방송(45명),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철학과(22명), 이리 팔봉초등학교(100명), 대전 서구문화원(131), 남청주 농협임직원(120명), 정읍시청 신규공무원(54명), 군산 보훈회관(40명), 남원 산내중학교(14명), 부안 삼남중학교(68명), 신태인읍사무소(11명) 등이다.

1	2
3	4

① 대전 청춘학교(31명) ② 정읍 얼지유치원(46명)
③ 천안 모임(40명) ④ 생생답사 전남여성(27명)

기념관 방문단체



기념관 방문단체



5	6
7	8
9	10

- ⑤ 정읍시청 역사문화체험(65명) ⑥ 부산 달팽이원정대(18명)
 ⑦ 정읍여자중학교(156명) ⑧ 서울 로망스투어(44명) ⑨ STB상생방송(45명)
 ⑩ 대흥교회(36명)

11	12
13	14
15	16

- ⑪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철학과(22명) ⑫ 이리 팔봉초등학교(100명)
 ⑬ 전남여고·광주고·부설방송통신고 주간과정(56명) ⑭ 정읍 이평중학교(41명)
 ⑮ 정읍 태양어린이집(48명) ⑯ 대전 서구문화원(131명)

기념관 방문단체



17	18
19	20
21	22

⑰ 남청주 농협 임직원(120명) ⑱ 정읍 연지유치원(30명) ⑲ 정읍시청 신규공무원(54명)
⑳ 군산시 보훈회관(40명) ㉑ 남원 산내중학교(14명) ㉒ 부안 삼남중학교(68명)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 사 제 목
10월 1일	브레이크뉴스	고부 없는 동학농민혁명... 역사 왜곡!
10월 1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선정 결의대회
10월 4일	아시아투데이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인문학강좌 열어 '호응'
10월 4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 대상 '갑오백성' 작품으로
10월 15일	광주일보	동학혁명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대회 연다
10월 15일	C뉴스041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앞장서야
10월 15일	전북중앙신문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
10월 15일	강원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10월 16일	NAVER 뉴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 위한 공청회 내일 개최
10월 18일	NEWS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한 토론회
10월 18일	네이버뉴스	동학기념일 제정 공청화... 4개 지역 당위성 들며 기싸움
10월 18일	동양일보	동학혁명 위령탑 '역사적 사실' 적시 안내문 세운다
10월 18일	울산저널	보은 장내에 모인 도인들, 동학사상을 실천하다
10월 19일	NEWS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극 '갑오백성' 순회 공연
10월 24일	뉴스웨이	연극 '갑오백성' 25일 고창문화의전당서 공연
10월 24일	한국농업신문	서석면 풍암리에서 제124주년 동학혁명 위령제 열려
10월 26일	브레이크뉴스	충남도의회, 동학혁명 기념사업지원 조례 추진
10월 29일	뉴스타운	2018년 동학농민혁명 추계 학술대회 원주 개최
10월 31일	OhmyNews	'일본의 양심', 동학농민혁명 추모제에서 사회
11월 5일	전민일보	'동학농민혁명'...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11월 5일	새전북신문	홍재일기, 동학농민혁명을 증언하다
11월 5일	충청투데이	동학영령 닛 달렸다
11월 7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이제는 마무리 짓자
11월 9일	MK뉴스	매년 11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11월 9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황토현전승일' 5월 11일로 결정
11월 9일	아시아경제	제15회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11월 12일	아시아투데이	김재원 국회의원 "동학운동 상주유적지, 국비로 우선 정비해야"
11월 12일	NEWSis	민주당 전북도당,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은 민중이 완성
11월 13일	새전북신문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월일(요일)	언론사명	기 사 제 목
11월 14일	전라일보	백산성지 일원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촉구
11월 16일	동아일보	"동학농민혁명, 31운동 이어진 전국적 항쟁"
11월 16일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과 미래를 논하다
11월 16일	NEWS1	동학운동 다룬 '우금티', 내년 봄 SBS 방송
11월 16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124주년 기념식·가족건강 걷기대회
11월 16일	동양일보	동학농민혁명 기념학술대회 당진서
11월 19일	브릿지경제	완주군, 제124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 개최
11월 19일	OhmyNews	'당당한 최후' 맞은 전봉준을 생각하며
11월 20일	CJ헬로비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 타령 놀이극 공연
11월 21일	뉴스웨이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동학마라톤대회 참가 신청 접수
11월 22일	울산저널	고부기포(古阜起包)로 동학혁명의 서막 올라
11월 22일	당진신문	당진면 만세운동과 동학의 후예들Ⅰ
11월 26일	부안독립신문	동학농민군 우재(優齋)를 만나는 해질녘이 좋다①
11월 26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1만세로 이어진 동학농민군의 함성'
11월 27일	뉴스프리존	위정척사와 동학혁명, 역사의 변곡점에서 보는 그들은 누구인가?
11월 30일	당진신문	당진면 만세운동과 동학의 후예들Ⅱ
12월 4일	전북중앙	제41회 전북애향대상에 이승우 군장대이사
12월 4일	전북중앙	부안서 6일 동학혁명 학술대회 열어
12월 4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운동 정신' 3.1운동 100주년에 담는다
12월 5일	전민일보	정읍교육지원청, '동학을 넘어 통일까지' 교사연수
12월 11일	조선일보	'한국형 패트리엇' 사업 500억 삭감... '동학혁명' 50억 증액
12월 11일	경향신문	내년 5월11일, 동학혁명의 요람 전북으로 오세요
12월 12일	전주MBC	3.1운동 마중물, 동학농민혁명 조명
12월 12일	전북일보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학농민혁명 세계사적 의의 새겨야"
12월 12일	경향신문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12월 13일	울산저널	백산대회(白山大會)를 통해 본격적인 동학혁명으로 전환
12월 15일	한국대학신문	이승우 군장대학교 총장, 제41회 전북애향대상 수상
12월 15일	전북도민일보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화가 있는 날' 전시해설과 영화상영
12월 16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사업 유적지 탐방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안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 신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족분들이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웃 등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
-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 유족명단(동일한 참여자에 여러 명의 유족이 있는 경우)
 - － 신청인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또는 고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문헌 1부
 - －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그 밖에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 **제출방법**
 - 2018년 9월 5일부터 심의위원회 사무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사무처 주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 **문의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사무처(☎ 063-538-2897)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참고